

獸醫師의 辯

울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닭의 뉴캐슬바 이라스가 사람의 결막염을, 아데노바이러스가 사람의 기관지염과 결막염을 일으키는 등 수없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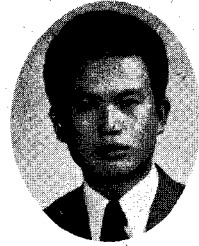
이렇게 볼때 동물의 건강은 인류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계속된 양계업의 불황에 지친 친지가 빈 계사에 소를 사육코저 하는데 닭장 옆에서 소를 사육하면 좋지 않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왜 안된다고 그러더냐고 물어본 즉, 닭털이나 비듬이 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었다. 먼지와 암모니아 가스가 자육한 계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닭의 건강에 앞서 자기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닭장을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다. 닭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약을 먹이면서 우리는 제대로 건강진단 한번 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 이제 난가도 회복되어 가고 전망도 좋으니 여유를 갖고 체력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한편 앞날의 축산물 소비자는 유해약품이나 살충제, 그리고 항생제 및 환경적 오염물이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자연 축산물 식품을 원하게끔 될 추세이므로 우리 축산인은 동물의 질병 퇴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닭은 원래 인간에게 자연환경으로부터 그 자유를 박탈 당한 채 강제 사육 당하는 처지이므로 닭의 습성에 맞는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하여 주는 것이 질병 대책에 있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격리이다. 격리는 질병 전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태양계장과의 격리 뿐만 아니라 같은 농장내에서도 육추, 육성 및 성계사간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축산인들은 영양가 높고 신선한 동물성 단백질식품을 인류에 공급함은 물론 질병 없는 건강한 동물관리를 하는 것이 인류의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송 기 홍

(양지가축약품 대표)

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 건강과 질병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며,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치료를 담당한다면, 수의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수의사는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인류가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Johnson박사가 WHO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농촌인구의 2/3는가축으로부터 질병을 감염받고 있다고 한다. 많은 인간의 전염병은 동물의 전염병에서 우발적으로 인간에게 전염되었으므로, 인간의 보건의 동물 보건의 동물유래 생산물에 크게 상관된다고 보겠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척추동물과 인간과의 사이에 전파되는 질병의 가지수는 약 150여개로 공중 보건상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 질병의 예방, 처치 및 박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884년경 전유럽에 대유행하던 광견병의 공포속에 있던 당시로서는 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프랑스의 Pasteur가 백신을 개발하여 동물에 접종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공포로부터 인류가 해방될 수 있었다. 또한 1798년 영국의 Jenner는 牛痘에 걸린 사람은 天然痘에 대한 면역이 형성된다는 가축 사육농가의 부인들 얘기를 토대로 연구끝에 천연두 예방백신제조에 성공하여 오늘날 지구상에서 천연두를 몰아낸 계기가 된 것이다. 1967년 영국에서 조사된 4,256건의 식중독 환자중, 3,259건이 살모넬라균에 의한 것으로, 그중 27명이 사망하였는데 23건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였다 한다. 살모넬라균은 사람과 동물에서 발견된 것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살모넬라 식중독의 감염경로는 대부분 축산물을 통한 것이었다.

한편 영국의 결핵환자 중 약 33%는 牛型結核菌에 의한 것이었으며, 약 2%는 鳥型結核菌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동물의 질병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매년 여름철이면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일본뇌염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염원이 되는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여 발병원을 없애주므로 어린이의 일본 뇌염 발병